가톨릭대학교 혁신서포터즈

2026-2학기 1호 뉴스레터

I. 학생혁신서포터즈 소개
II. 아이디어톤 수상작
III. AI 부트캠프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UK 비전혁신원

학생의 시선으로, 대학의 변화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학생혁신서포터즈입니다.

학생혁신서포터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학의 다양한 혁신 활동을 발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학생 주도형 혁신 서포터즈입니다.

2026년 하반기, 학생혁신서포터즈가 새로운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참여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학생의 시선으로 담아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은 그 변화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매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혁신서포터즈가 전하는 대학의 변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아이디어가 대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혁신서포터즈가 그 사이를 연결하겠습니다.

@cuk_vision

STUDENT INNOVATION SUPPORTERS NEWSLETTER

CUK 학생혁신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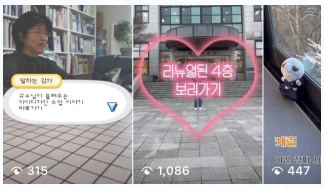
학생혁신서포터즈는 가톨릭대학교 CUK 비전혁신원 산하 동아리로,
학생 주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홍보·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Design yourself as a Professional DESIGNer!」라는 대학 혁신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대학의 변화로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및 혁신 기획



대학 혁신 프로젝트 수행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톤, 교내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이번 제5회 CUK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교내 공간혁신>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공간의 활용 방안과 미래 대학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교내 구성원의 공간 수요와 학생 경험의 확장,
AI 기술 활용 등 미래 대학 혁신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했으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의 변화로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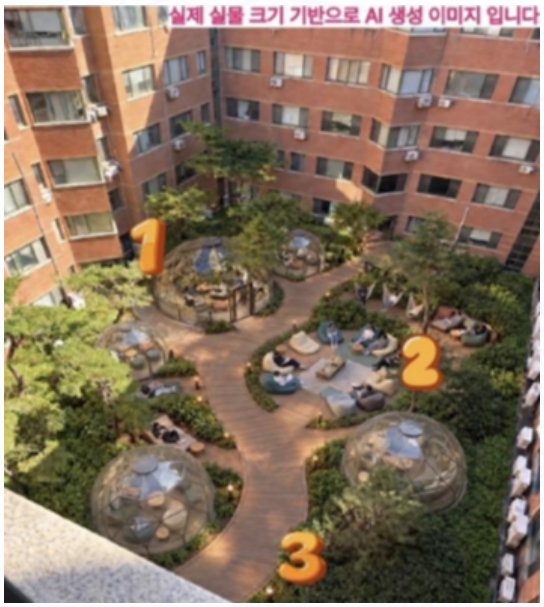
다솔관 중앙정원 개선

다솔관 중앙정원

다솔관 중앙정원은 넓은 공간을 갖추고도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않던 점을 주목하여 이번 제안에서는 정원의 독립적인 공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편안히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상 사진



조감도

숨은 정원을, 머무는 정원으로

01. 기존 자연환경을 살린 공간 재구성
기존 수목과 자연환경을 살리고, 나무 데크와 조경을 더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2. 다양한 이용 방식을 고려한 휴식 공간
원형 유리 돔과 빈백을 배치해 혼자서도, 여럿이서도 자유롭게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03.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
참가자들은 중앙정원 입구에 안내 표지와 함께 바닥에 유도선을 표시하여 중앙정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대효과]

인지도 향상 | 휴식공간 확충 | 교류 활성화 | 이용데이터 수집

[추진 구상]

약 7,000만원 | 자유예약제 | 이용데이터 기반 단계적 확장

최우수상

[숨구멍]

방치된 공간에서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숨구멍'은 도서관 앞의 옛 흡연 공간을 학생을 위한 방음·휴식공간으로 전환하는 제안으로 현장 조사와 학생 의견을 바탕으로 방치된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상 사진

방치된공간을,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01. 현장 조사로 확인한 개선 과제

현장 조사 결과 기존 흡연장 구조물에는 관리 주체와 용도에 관한 안내 없이 방치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02. 학생 의견을 반영한 활용 방향

재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현장 공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이 해당 공간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향후 방음부스로 조성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음부스 이용을 희망하였습니다.

03. 안전한 이용과 지속적인 운영

조명 설치와 시야 확보,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고 감정 표현 프로그램과 느린 우체통 등 여러 활동을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운영 계획

우수상

이김좋다 팀

CUK 헤리티지 & 웰컴센터

학교를 대표할 상징적인 공간이 부족했던 가톨릭대학교. 학생 설문에서도 교내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이김좋다 팀은김수환관을 학교의 얼굴로 새로 조성하고, 나아가 학교의 역사와 문화,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CUK 헤리티지 & 웰컴센터'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상 사진



01. 김수환관 주 출입구의 상징성 강화

김수환관 주출입구에 대학 로고를 활용한 야외 포토존을 조성하여 눈에 띄는 위치에서 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신입생과 유학생, 졸업생들이 캠퍼스에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02. CUK 헤리티지 & 웰컴센터

자연과 어우러진 개방적인 공간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역사 전시와 특색 있는 기념품을 통해 대학의 정체성을 전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구성원과 외부 방문객 모두 이용하는 캠퍼스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03. 정문 지도로부터 시작하는 NFC 스마트 캠퍼스

NFC를 통해 학식, 통학버스 등 학교생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캠퍼스 곳곳에서 학교의 역사와 문화, 학과 정보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학생과 장애학생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정보와 공간을 연결하고, 가톨릭대학교만의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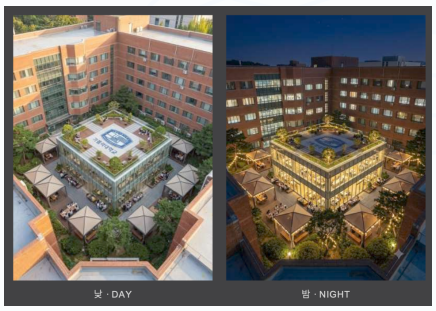
다솔마루

다솔관 중정을 학생 중심 쉼터로

다솔마루는 활용도가 높지 않던 다솔관 중정에 취식과 휴식 기능을 더하는 공간 제안이다. 건물과 가까운 위치와 기존 자연환경 등 중정의 장점을 살려, 학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상 사진



조감도



설계 도면

01. 중정형 파빌리온

비어 있던 중앙정원에 파빌리온을 조성해 학생들이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으며, 중정의 넓은 개방성과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일상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02. 실제 설계로 구체화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설계 도면을 제작하여 공간의 형태와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03.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실현 가능성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캐나다 Université Laval 등 국내외 중정형 건물 사례를 참고해 공간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대되는 변화]

취식 공간 확대 | 휴식공간 확충 | 교류 활성화 | 이미지 개선

[추진 구상]

공간 활용 모델화 | 캠퍼스 공간 확장 | 교내 유사 공간 확대 가능성

장려상

빈 강의실의 새로운 활용

CUK SPACE로 연결되는 학습과 휴식

학습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찾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강의실이 비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강의실을 직접 확인하고 예약하는 '틈·CUK SPACE'를 구상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공간 이용 기회를 넓히는 제안입니다.



수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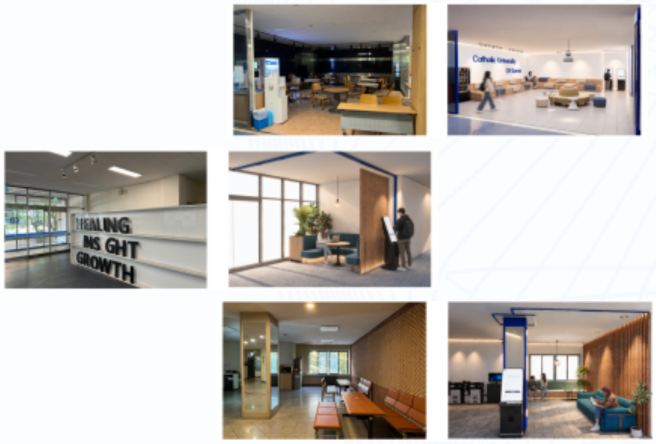
01. 캠퍼스의 빈 공간에 주목하다

학생들이 겪는 여러 캠퍼스 문제 중 학습·휴게 공간 부족에 집중했습니다.
캠퍼스를 살펴보니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 동선에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기능적 유휴공간',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수업이 없는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시간적 유휴공간'이 존재했습니다.

02. '틈 · CUK SPACE'로 연결하다

수업이 없는 강의실을 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틈 · CUK SPACE'를 제안했습니다.
앱이나 키오스크에서 이용 가능한 강의실과 시간을 확인하고, 학생 인증 후 원하는 공간과
이용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후 안내된 강의실에서 학습하고,
종료 안내에 따라 정리 후 퇴실하는 방식입니다.





03. 새로운 공간 대신, 새로운 활용

빈 강의실뿐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공간도
새로운 캠퍼스 거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니콜스관 1층, 다솔관 2층, 카페 하랑 앞 세 곳에서 시작해 휴식과 학습, 강의실 대여를 연결하고,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건물과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장려상

밤비노관, 새로운 쉼의 공간

유휴공간을 개인 휴식과 공용 라운지로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뿐 아니라 수업 사이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밤비노관 1층을 개인 캡슐형 휴식 공간과 공용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 속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상 사진



Before - After



Layout Plan

밤비노 캡슐호텔형 휴식공간

01. 학생들의 '쉼'에 주목

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이용 불편, 학습·휴게 공간 부족 등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바탕으로 교내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02. 개인 휴식과 공용 공간의 결합

밤비노관 1층의 기존 유휴공간에 개인이 독립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용 휴게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개인 휴식과 공동 이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03. 공간 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함께 구성해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편히 머물며 재충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학생 중심의 휴식 환경을 지향함으로서 향후 다른 공간에 단계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변화]

휴식공간 확대 | 공강시간 활용 | 학생 편의 향상 | 유휴공간 재생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기존 공간 활용 | 단계적 확장 가능 | 학생 중심 공간

AI BOOTCAMP
FROM IDEA TO WEB SERVICE

AI와 함께,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Career DESIGN이 주관한 「AI 부트캠프」가 9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해, 이틀 안에 실제 주소가 있는 웹서비스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웹서비스로
구현하여 전공이나 개발 경험에 관계없이 AI와 함께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집중 실습을 경험했습니다





기획부터 개발·배포까지, 직접 해보다

참가자들은 Codex 페어코딩, PRD·프롬프트 작성, DB·스키마 설계, Supabase 연결, 로그인 구현,
외부 API·Git 활용, Vercel 배포 등 웹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AI 사용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도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기획부터 배포까지 웹서비스 제작의 전체 흐름을 경험했습니다.



실습 화면과 실제 현장



질문 및 멘토링 과정



웹 서비스 제작 실습

DEMO DAY
TURNING IDEAS INTO REALITY

이틀간의 도전, 데모데이로 완성하다

이틀간의 집중 실습을 마친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웹서비스를 소개하는 데모데이에 참여하였고,아이디어의 출발점부터 주요 기능과 구현 과정까지 직접 설명하며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했습니다. 짧은시간 안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발전시키면서 참가자들은 기술적인 구현뿐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시연



아이디어 발표



결과물 공유

AI를 사용하는 것에서,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 경험으로

이번 AI 부트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AI를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작업 보조 수단을 넘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발전시키는 협업 도구로 경험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직접 개발하고, 실제 접속 가능한 웹서비스로 배포한 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까지. 학생들은 이틀간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Career DESIGN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과 공유 현장



AI 부트캠프 참가자 단체사진

가톨릭대학교 혁신서포터즈

9월 뉴스레터